

〈學術 發表 演題 및 抄錄〉

第三部：微生物學 分野

(12~17 演題, 14:15~15:30)

- 座長 孫 奉 煥 博士(前, 家畜衛生學會長)
- 進行 朴 炳 玉 研究士(京畿家衛)

12. 경기지역의 우결핵병 발생에 관한 역학적 고찰(1987~1996)

국정희 · 심항섭 · 고태오 · 우종태 · 조중현 · 박유순

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

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동안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우결핵병에 관하여 역학 조사를 수행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

1. 경기지역의 우결핵병 발생농가수는 1987년 이후 감소하다가 1990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세로 1995년에는 102농가가 발생하여 최고로 높았으며, 10년동안 총 456농가가 발생되어 전체 발생 농가수의 56.7%를 차지하고 있었다.
2. 우결핵병 양성두수의 발생도 발생농가수와 마찬가지로 경향을 나타냈으나 1993년 이후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, 10년동안 총 1,015두가 우결핵병 양성으로 판정되어 전체 양성두수의 64.3%를 차지하고 있었다.
3. 10년동안 총검진두수에 대한 평균 양성율은 0.10%였으며 1993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1996년에는 0.23%로 가장 높았다.
4. 경기도내 지역별 우결핵병 발생상황을 보면 화성군, 포천군, 평택시 순으로 많았고, 발생밀도는 부천시, 안양시, 안산시 순으로 높아 중서부지역 및 북부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.
5. 경기지역내 우결핵병 발생농장에 대한 재발생 경향을 조사한 결과 1회 발생농가가 전체의 82.2%를 차지하였으나 양성두수는 2회이상 발생농가에서 총두수의 58.2%를 차지하여 한번 발생한 농가에서 다시 발생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.